

민노총 하투 본격화... 李정부에 '청구서' 들이밀었다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연 '연'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등 전국 13곳서 총파업 대화... 정부·국회 본격 압박 "노동자 힘으로 탄생한 정부,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라" 노란봉투법 개정·尹정부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여러 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친노동 행보를 보이며 민노총의 요구사항도 정부와 국회에 집중됐다. 민노총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노총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은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경남·경북·전북·전남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 대회를 연다. 민노총은 수도권에서 1만 명이 참가하고 전국에서는 3만 명이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노총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송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가 정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투표 결과에 따라 24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4일과 25일 상경 총파업 대회와 26일 서울역 광장에서의 산별 집중 투쟁이 예정돼 있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노동조합법 2조·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경 교섭 정취 등을 내세웠다. 2일 발표된 총파업 선포 입장문에서는 △안전운임제 복원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폐지 △타임오프

기획 감사 등이 언급됐다. 이에 더해 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도 요구했다. 이번 투쟁의 요구사항이 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것이다. 민노총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민노총은 김재연 전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 당시 내부 의견이 갈리며 일부 지도부가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친노동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친노동 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재명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정부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민노총이 요구하는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노총의 요구사항은 상당수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인 5월1일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5월16일에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적용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또한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7월3일 노조 회계 공시제도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노총은 "오늘 민노총의 총파업은 단순히 특정 요구사항을 넘어 노동자들이 이끌어낸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의를 완성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다"며 "민노총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는 그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K불닭소스, 글로벌 시장에서 매콤한 질주

매운 불닭소스에서 저당 드레싱까지, K소스가 국내외 식탁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매운맛과 건강 지향 트렌드가 결합하면서 국내 식품기업들의 K소스 수출은 물론 내수 실적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가는 모습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스류 수출 규모는 3억9976만 달러(5500억 원)로 전년보다 3.6% 증가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갈아치웠다. 국내 소스 시장 규모 또한 2019년 1조37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2조1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수출 상위 품목은 불닭, 떡볶이, 비빔장류, 삼겹살용 소스 등이다.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식 매운맛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삼양식품의 불닭소스는 라면을 넘어 단품 소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만으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불닭소스와 스낵 등으로 제품군을 다각화하며 해외 매

지난해 소스류 수출 5500억 원... 불닭·떡볶이 등 효자 품목 삼양 불닭 특히 인기... 연 매출 1조에 해외 매출 비중은 70%

출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불닭소스' 성장세에 맞춰 소스 전문 기업 지엔에프(G&F) 인수를 추진 중이다. 전용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을 확보해 소스 사업을 그룹의 주력 포트폴리오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올해 1분기 삼양식품의 소스·조미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6% 급증한 168억 원을 기록했다. 농심은 짜파게티, 김치사발면 등과 함께 떡볶이소스, 김치양념을 북미·유럽 시장에 집중 수출하며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1분기 식품사업에서만 2조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비비고 고추장과 불고기양념 등 K소스류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며 전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60여 개국에 K소스를 수출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춰 매운맛의 강도를 조절하고, 익숙한 튜브형 포장 상품을 선보이는 등 해외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저당·저나트륨 소스 라인을 강화해 건강을 중시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도 발맞추고 있다. 맛과 동시에 건강을 겨냥한 제품도 늘고 있다. 동원푸드사는 '비비드키친' 브랜드를 통해 당류를 최대 86% 줄인 저당 양



삼양식품에서 출시한 불닭소스, 삼양식품

념 7종을 선보이며 기업 간 거래(B2B)와 수출 시장을 동시에 공략 중이다. 지난해 연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48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수출 목표는 300억 원이다. 대상은 자체 저당 브랜드 '로우태그(LOWTAG)'를 통해 고추장, 된장찌개 양념, 맛간장 등 주요 장류를 저당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로우태그는 식약처 기준을 충족한 저당·저염 제품에 부착되는 엠블럼으로, 기존 대비 당류를 최대 86% 낮췄다. 오푸기 역시 기존 마요네즈, 케첩류 대비 칼로리를 절반 이하로 낮춘 건강 지향형 소스를 출시했다. 국내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집밥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간편하면서도 전문점 못지않은 맛을 내는 '홈쿡용' 소스 수요가 급증했다. 실제로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매운 불닭소스, 간장양념, 된장찌개 양념 등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롯데마트는 올해 들어 저당 소스 판매 비중이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다이어트와 당 관리에 민감한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제품군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주요 대기업 20대 고용 증가 상위 10곳				주요 대기업 20대 고용 감소 상위 10곳			
기업	2022년	2024년	증감률	기업	2022년	2024년	증감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5	15.8	8.3%p	삼성디스플레이	43.8	28.4	-15.4%p
LX인터내셔널	14.3	21.0	6.7%p	SK온	37.0	24.7	-12.3%p
SK에너지	13.1	18.4	5.3%p	LG이노텍	43.9	35.0	-8.9%p
삼성 E&A	9.3	14.5	5.2%p	SK하이닉스	29.6	20.8	-8.8%p
S-Oil	8.4	13.1	4.7%p	삼성SDI	40.2	32.3	-7.9%p
현대제철	13.1	17.7	4.6%p	NAVER	25.4	18.3	-7.1%p
현대글로벌비스	19.1	23.3	4.2%p	삼성전자	30.8	24.2	-6.6%p
SK이온트릭	15.5	19.2	3.7%p	한화솔루션	26.6	20.2	-6.4%p
두산에너지빌리티	7.2	10.9	3.7%p	삼성전기	44.1	38.2	-5.9%p
한온시스템	8.1	11.5	3.4%p	LG디스플레이	47.5	41.9	-5.6%p

*각 기업이 공시한 연평균 임직원 현황 기준
*기업별 공시 형식의 차이로 '30세 이하'로 분류된 경우 20대로 분류하여 집계
자료: CEO스코어

"청년 안 뽑아요"... 대기업 20대 직원 비중 '뚝'

국내 주요 대기업의 청년 고용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6일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을 대상으로 2022~24년 연평균 임직원 수 및 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대 임직원 수는 2022년 29만1235명에서 2023년 26만4091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4년 24만3737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 2년 새 4만7498명이 줄었다. 그 결과 대기업 임직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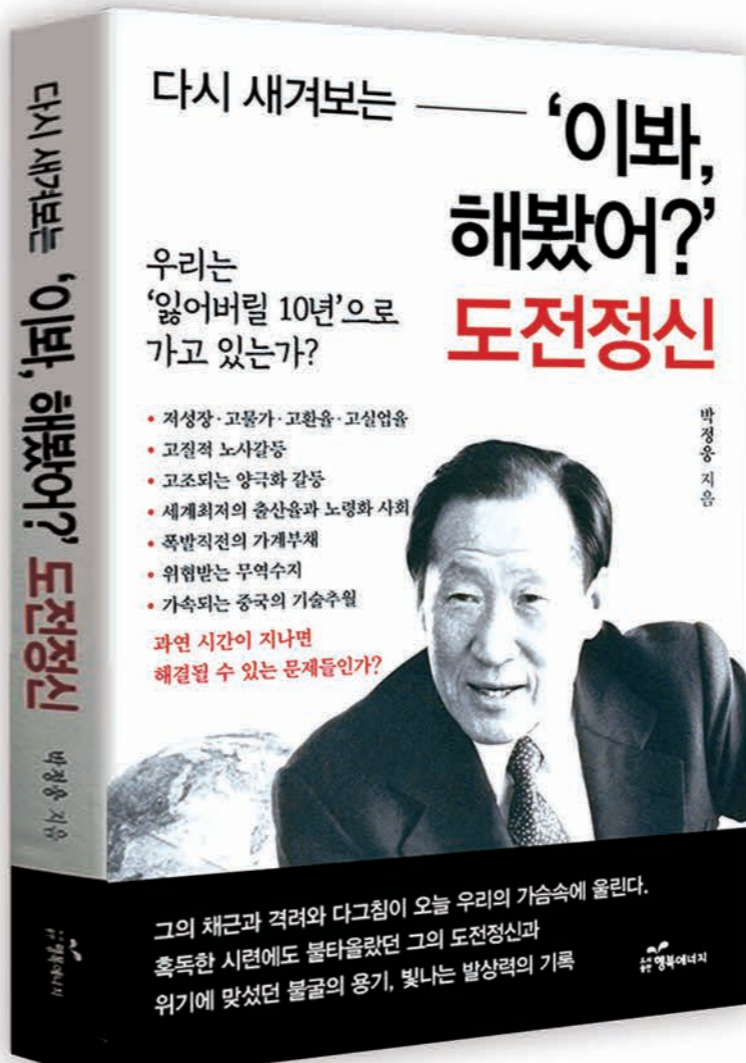
중이 2022년 24.8%에서 2023년 22.7%로 줄었고 2024년에는 21.0%로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고용 감소가 눈에 띄었다. 2022년 43.8%였던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은 2024년 28.4%로 무려 15.4%p나 축소됐다. 삼성디스플레이 다음으로 20대 비중이 감소한 곳은 △SK온(12.3%p) △LG이노텍(8.9%p) △SK하이닉스(8.8%p)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K방산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대 고용이 가장 크게 늘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백 걸 할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삼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지상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필생의 연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를**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산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기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상**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쇄신, 더 절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단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챙겼던 '콘스'와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 · 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